

#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평화의 씨앗을 심는 우리 (마태 5:9)

# 주 일 낮 에 배 순 서

【 사순절 제2주 】

전 주 .....	반주자
은총을 기리는 노래 .....	비 전 .....
♠ 예배로의 부름 .....	다함께
♠ 경배의 찬송 .....	24. 다 나와 찬송드리세 .....
♠ 공동기도 .....	다함께

참 좋으신 하나님, 꽃샘추위가 매서웠습니다. 햇살은 환하지만 불을 스치는 바람은 여전히 차갑습니다. 갈등과 싸움이 그치지 않는 세상이기에 우리는 사랑의 봄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봄바람처럼 불어와 우리 속에 생명의 불을 지피시는 주님, 우리 마음에 질게 드리운 피곤함과 권태로움의 베일을 벗겨주십시오. 미움과 냉소와 시기심을 버리고 사랑과 감사의 심정에 복받쳐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주님, 세상의 부귀영화보다 당신의 가르침을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갖가지 유혹이 몰려들어 정신이 혼란할 때에도 주님의 음성을 가려듣게 해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만 행하게 이끌어주십시오. 사람이 아무리 어리석다 해도 주님께 의탁하면 넘어질 리 없음을 아오니, 주님, 우리를 받아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참회의 침묵기도 .....	다함께
♠ 위로의 말씀 .....	사58:11 .....
♠ 교 독 문 .....	49. 빌립소서 2장 .....
♠ 영 광 송 .....	6. 찬양 성부 성자 성령 .....
대표기도 .....	I. 광권희 선생 II. 구성실 장로
사도신경 .....	다함께
응 답 송 .....	성가대
찬 송 .....	171. 비둘기 같이 온유한 .....
성경봉독 .....	I. 창9:18-29 .....
	II. 고후12:1-10 .....
찬 양 .....	최숙화 권사
말 씬 .....	I. 허물을 덮는 사랑 .....
	II. 이상한 자랑 .....
	김기석 목사
	김기석 목사

거듭기도 .....	다함께
헌신의 찬송 ..... 423. 나의 믿음 약할 때 .....	다함께
헌금봉헌 .....	다함께
♠ 봉 헌 송 ..... 71. 내게 있는 모든 것을 .....	다함께
♠ 봉헌 및 목회기도 .....	인도자
공동체 소식 .....	인도자
♠ 평화의 인사 .....	다함께
♠ 결단의 찬송 ..... 평화의 기도(성 프란시스코) .....	다함께
♠ 보냄의 말씀 .....	다함께

인 도 자 :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세상의 자랑거리들은 속절없이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자기의 가진 것을 다 팔아 값진 보화를 사는 사람들처럼 주님과 동행함을 가장 큰 행복으로 여기며 사십시오.

다 함 께 : 주님, 우리가 연약할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때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주님을 모실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우리 마음을 뒤덮은 여러 가지 헛된 일들과 작별하겠습니다. 어디로 이끄시든 기쁨으로 따라나설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더해주시옵소서. 아멘.

♠ 축 복 ..... 담임목사

☼ 우리의 내일은 밝습니다 ☼

<b>주일 오후 집회</b>	<b>수요 집회</b>
교사헌신예배	3월 기도의 밤
말씀 : 김재흥 목사	인도 : 김재흥 목사

<b>다음 주 예배위원</b>	<b>설교</b>	<b>기도</b>	<b>성경봉독</b>
	김재흥 목사 김기석 목사	문영혜 집사 이용한 장로	인도자 김근종 권사

<b>3월</b>	영접위원	구성실	방문성	홍순구	최철수	이소순	고숙이
	헌금위원	조병무	이인웅	김인걸	이순정	임정자	안정숙

## 모두가 승자가 되는 길

1988년 서울에서 열린 제24회 올림픽 때 있던 일이다. 유남규 선수와 스웨덴의 페르손 선수가 탁구 준결승전에서 만나게 되었다. 두 선수는 모두가 금메달 후보로 준결승전이 사실상의 결승전과 같았다. 물러설 수 없는 한판이었다. 당시 페르손 선수는 세계 랭킹 6위로서 유남규 선수보다는 뛰어난 전력을 가지고 있었다.

경기는 아슬아슬하게 진행되었다. 얽치락뒤치락하는 사이 세트 점수가 2 대 2가 되었고 마지막 5세트가 시작되었다. 선수들도, 관중들도 모두 긴장 속으로 빠져들었다. 5세트도 점수를 주거나 받거나 하여 한 치의 양보도 없었다. 점수가 17대 16으로 유남규 선수가 가까스로 이기고 있을 때였다. 페르손 선수가 서브를 넣었고, 유남규 선수가 리시브를 했을 때 페르손 선수가 있는 힘을 다해 리시브된 공을 받아쳤다. 공의 속도가 얼마나 빨랐던지 유남규 선수가 손도 대 보지 못한 가운데 공이 바깥으로 통겨져 나갔다.

심판은 페르손 선수에게 점수를 줄 것을 선언했다. 17 대 17, 이제 승부가 더욱 가려지기 힘든 상황이 되는 순간이었다. 그때였다. 페르손 선수가 손짓으로 경기를 중단시키더니 심판에게 다가가 말했다.

“제가 방금 딴 점수는 무효입니다. 따라서 점수가 동점이 아니라 16 대 18로 제가 지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방금 제가 친 공은 테이블 모서리를 맞지 않고 그대로 바깥으로 아웃된 공이었습시다.”

이와 같은 사실이 방송을 통해 경기장 안에 알려지자 관중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페르손 선수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내 주었다. 경기는 유남규 선수의 승리로 끝났다. 두 선수는 땀을 닦으며 서로를 축하해 주었다. 두 사람은 모두가 훌륭한 승자였다.

가만 있어도 그만이었을 텐데 그 중요한 순간에 자신의 실수를 인정할 줄 알았던 페르손의 정직함은 올림픽 금메달을 뛰어넘는, 정말 값진 것이 아닐 수 없다. 힘들고 어려워도 인정해야 할 것을 인정하는 것, 모두가 승자가 되는 길은 바로 그런 마음에 있었다.

## 마지못해 구한 은총

옛날에 믿음의 매우 깊은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하늘에서도 그를 보고

몹시 기뻐할 정도였다. 그는 거룩한 성품을 지니고 있었지만 정작 자신은 자신이 거룩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는 사람을 대하되 그의 과거를 잊어버리고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보았고, 사람의 겉모습에 머물지 않고 그의 깊은 곳을 살폈으며, 누구를 만나든 그를 용서했고 사랑하는 삶을 살았다. 어느 날 천사가 그를 찾아와 말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에게 보내셨소. 무엇이든 청하기만 하면 당신에게 주어질 것이요. 치유의 능력을 받고 싶소?”

“아닙니다. 저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친히 치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죄인들을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고 싶소?”

“아닙니다. 인간의 마음을 건드리는 것은 저의 일이 아닙니다. 그건 천사들의 일입니다.”

“덕행의 모범이 되어 사람들이 본받고 싶게 마음이 끌리는 사람이 되고 싶으요?”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관심의 중심이 될 테니까요.”

“그러면 그대는 무엇을 바라요?”

“하나님의 은총을요. 은총만 있다면 저는 제가 바라는 모든 것을 가진 것입니다.”

“안 되요. 어떤 기적을 원해야 하오. 안 그러면 한 가지를 억지로라도 떠맡겨야겠소.”

“정 그러시다면 이걸 청하겠습니다. 저를 통해서 좋은 일들이 이루어지되, 제 자신이 알아차리는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거룩한 사람의 그림자가 그의 뒤에 생길 때마다 그곳이 치유의 땅이 되도록 결정이 되었다. 그의 그림자가 생기는 곳마다 그가 그 그림자에 등을 돌리고 있다는 조건으로 병자들이 치유되고, 땅이 기름지게 되고, 샘들이 다시 솟고, 삶에 지친 이들의 얼굴에 기쁨이 감돌게 되었다. 사람들은 성인을 통해 수많은 은총을 경험하게 되었지만 성인은 그것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었다. 그리하여 자기는 잊혀진 채 자기를 통해서 좋은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성인의 소원은 충분히 성취가 되었다.

마지못해 구하였던 마지막 은총, 자신을 통해 좋은 일들이 이루어지되 저 자신이 알아차리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는 요청이 더없이 귀하게 여겨진다. 그 그윽한 경지에 우리는 언제쯤 어떻게 이를 수 있을지. 있을 곳에 말없이 내가 있어 모든 것이 넉넉해지는 복된 삶, 그 은총어린 삶을 다 같이 꿈꿔 봤으면 좋겠다.

## 한 치 건너 두 치

‘치’는 길이를 재는 단위의 한 가지로 한 자의 10분의 1에 해당한다. 한 치의 10분의 1은 ‘푼’이라 부른다. 한 자가 대략 33cm쯤 되니 한 치는 3.3cm 정도 되는 길이겠다. ‘한’ 치 건너 ‘두’ 치라 함은 ‘손수가 멀어 질수록 정도 멀어진다’는 뜻으로 쓰이는 말이다. 말 그대로 한 치를 건너야 두 치가 나온다.

살다 보면 당연히 중요하게 우선하는 게 있고, 중요해 보여도 나중에 하게 되는 일이 있다. 한 치가 있고, 그 다음 두 치가 있는 것이다. 내 삶에서 무엇이 ‘한 치’이고, 무엇이 ‘두 치’인가를 아는 것은 중요하다.

무엇보다도 우선해야 하는 ‘한 치’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두 치, 세 치 나가도 괜찮을 것이다. 가장 중요한 ‘한 치’를 모르면 결국 엉뚱하고 허망한 것들이 한 치 자리를 차지하게 되고, 정작 한 치가 되어야 할 중요한 것은 세 치, 네 치……, 뒤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내 삶의 ‘한 치’는 과연 무엇일지, 그 한 치는 지금 내 삶의 가장 앞부분에 있는지 점검해 볼 일이다.

한 알의 모래 속에서 세상을 보고  
한 송이 들꽃 속에서 천국을 보네.  
그대의 손 안에 무한을 쥐고  
한순간 속에서 영원을 보라.  
—윌리엄 블레이크

###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원로목사 : 박정오    소속목사 : 한인철    원로전도사 : 박옥식  
원로장로 : 방현복    김춘려    전영규    김성한  
장    로 :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조병무    한완식    구성실    이용한    윤석철  
성가대장 : 이용한    지휘 : 윤주원    반주 : 최윤선    안홍숙    한선희    김수진  
관 리 인 : 노용래    운전기사 : 오진훈    도서관    관장 : 이순정

## ◇ 헌 금 영 수 기 ◇

### 십일조헌금:

김기석 김희우 박옥식 방현복 이부방 이용한 오성희 한상익 정영선  
 방문성 박혜경 김중수 이순정 김훈동 유경순 안종일 정현주 백승민  
 김희진 박홍재 김근종 정옥영 김성수 김애경 김용길 최영혜 박옥순  
 이소순 김윤수 박옥경 김지윤 김지호 정복순 노용래 김재흥 최희영  
 박홍엽 최인환 김인걸 문영혜 오진훈 노순옥 안정숙 이영란 고광송  
 이춘희

### 월정헌금:

장재경 김재영 윤주원 최윤선 이동천 김창원 정지은 황경순 이응구  
 한선희 최주환 문복순 왕수명 권미정 박준희 이기분 전영규 김경수  
 김성수 이희균 김영한 박경원 박찬정 최동운 이은자 노미향 이호원  
 이증자 김승현 김수진 최성애 하현철 박범희 서재홍 박현우

### 감사헌금:

김종훈 안경숙 방정자 김홍기 박권동 무명2

생일감사헌금: 유혜경 김지윤      구도헌금: 김철수

## ◇ 속 회 보 고 ◇

속 명	인 도 자	속 장	모 인 곳	다음 장소
예루살렘	유 영 남	차 혜 심	연 합 속 회	조 순 덕
베들레헴	윤 정 덕	정 경 례		노 순 옥
안 디 옥	임 정 자	곽 권 희		정 진 경
가 나 안	문 영 혜	박 경 선		이 봉 배
갈 린 리	조 병 주	박 애 순		진 정 속
베 다 니	임 창 선	박 홍 재		김 필 순
시 온	박 효 선	허 정 윤		허 정 윤
엠 마 오	최 속 화	권 미 정		오 성 희
에 베 소	이 순 정	한 선 희		이 순 정
빌 립 보	최 종 원	이 형 속		이 형 속
가 버 나 움	구 성 실	안 흥 속		안 흥 속
나 사 렛	백 혜 속	정 옥 영		정 옥 영
갈 라 디 아	송 양 진	유 경 순		안 경 속
고 린 도	이 영 란	이 증 자		배 삼 순
다 메 섹	박 혜 경	최 영 혜	조 향 미	
두 란 노	안 종 일	정 현 주	교 회	

## ■ 교/회/소/식/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1. **속장·인도자회** : 2부 예배 후 교육관에서 모입니다.
2. **오후집회** : 오늘 오후 집회는 새학기를 맞은 교사들이 드리는 헌신예배입니다.
3. **부장회의** : 오후 1시에 사택에서 모입니다.
4. **기도의 밤** : 3월 기도의 밤이 10일(수) 저녁 7시 30분에 열립니다. 기도회 중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5. **성경학당** : 9일(화)부터 오전(10:30)과 저녁반(7:30) 개강합니다. 새로운 삶을 꿈꾸는 이들은 다 오십시오.
6. **세례신청** : 오는 부활절에 세례와 입교식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분들은 사무실에 신청서를 내시고, 21일부터 시작하는 예비교육에 참석하십시오.
7. **신앙실천** : 날마다 마스크를 통하여 접하는 일들 가운데 우리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기도의 지평을 넓힐 때 우리 영혼도 자랄 것입니다.

\*헌화 - 전영규 장로 (생일)

##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아부	10:50	유아부실	1부예배	09:30	교육관
유치부	10:50	유치부실	2부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오후집회	14:00	교육관
중고등부	10:5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년회	16:0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